



WORLD
WARCRAFT
LEGION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천 년의 전쟁

–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의 이야기

로버트 브룩스 저

제 1 부 – 두 개의 밝은 빛

투랄리온은 꿈쩍도 않고 홀로 서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숨죽여 바라보았다.

어둠의 문을 봉인한 건 불과 몇 시간 전이다. 드레노어의 땅은 허물어졌다. 땅은 갈라졌고 바다는 뒤틀리며 끓어올랐다. 깨진 암석 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쳐 그대로 떠 있었다. 천천히 회전하며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현실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투랄리온은 침착했다. 겁을 먹지도 않았다. 빛의 힘이, 이 기이한 곳에서도 함께 하고 있었다.

여기는 드레노어가 아니었다.

물론 드레노어처럼 보였지만, 결코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없었다. 투랄리온의 발밑으로 지옥불 반도의 붉은 평지가 뻗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는 드레노어라고 할 수 없었다. 저 멀리에서는 급조한 엘라이언스군의 중심 지역, 명예의 요새가 여진을 곳곳이 견뎌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는 드레노어가 아니었다.

분명 투랄리온은 그곳에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 그는 그곳에서 목숨 바쳐 싸웠다. 오크, 엘라이언스 병사, 망가진 전쟁 기계, 쓰러진 자들의 시체, 버려진 무기 그리고 전쟁의 모든 잔해가 지옥불 반도를 가득 채웠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도 느껴지지 않았다. 죽은 듯한 텅 빈 땅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드레노어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렇다, 이곳은 드레노어가 아니다.

그는 전혀 모르는 다른 곳에 와 있었다. 어두운 하늘은 뒤틀리고 있었으며 서로 충돌하는 낮선 힘들로 가득했다. 모든 세계가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보였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었다. 그는 빛이 어둠과 섞이는 것을 느꼈다. 이 곳에서는 혼돈과 질서, 생명과 죽음이 서로 부딪치며 제어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어디인지도, 탈출하는 방법도 몰랐다. 그는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카드가. 다나스. 쿠르드란. 알레리아.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탁 트인 땅 위에 가만히 서서 빛의 힘이 흘러 들어오게 했다. 조심해야 했다. 무언가가 그의 존재를 눈치챌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아무것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투랄리온은 동쪽에서 시선을 느꼈다. 악한 눈빛이었다. 시간이 꽤 흘러도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그 눈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피에 굶주려 있었다.

투랄리온은 침묵을 깨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리 나와라. 빛의 힘을 보여주마”

그의 뒤, 서쪽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다시 듣기를 간구했던 목소리였다.

“투랄리온!”

그는 웃으며 돌아섰다. 그녀가 찾아왔다. “알레리아? 오, 빛이시여...”

그는 숨이 막혔다. 알레리아가 활을 들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놓아 활시위를 튕기며 소리쳤다.

“왼쪽!”

소리와 동시에 투랄리온은 왼쪽으로 머리를 꺾 숙였다. 화살이 그의 목을 스치며 바람을 일으켰다. 화살은 호를 그리며 멀리 날아가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붉은 땅에 꽃힌 화살의 살갓이 떨어졌다.

알레리아 윈드러너는 새 화살을 시위에 걸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활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시선을 맞추었다. “미안해. 나한테는 왼쪽이었어.”

투랄리온은 저 멀리 화살을 흘깃 보았다. “반사신경 시험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봤나?”

“무언가를 봤어.”

“아쉽네. 당신 반사신경도 시험했으면 좋을 텐데. 말만 해. 내 방패를 던져줄 테니.”

알레리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가 금세 사라졌다. “다음에 하지.” 그녀는 투랄리온이 있던 자리에서 땅을 바라봤다. “흔적이야.” 그녀는 바닥을 가리켰다.

투랄리온은 메마른 땅에 찍힌 자신의 부츠 자국을 보았다. 그런데 한 발짝 뒤에 다른 이의 희미한 발자국이 보였다. 누군가 그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조금 전까지 뒤를 보고 있었으니 그의 앞에 있던 것이었으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뭐였을까?

알레리아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희미한 빛을 봤어. 당신이 뒤를 돌아 형체가 생겼고. 원지는 모르지만, 화살이 덮치기 전에 달아났어.”

“오크인가? 넬줄의 흑마법사가 왔을 수도 있어.”

“오크는 아니야.” 알레리아가 확신했다.

“화살을 가져올까?”

알레리아는 그를 바라봤다. “여긴 드레노어가 아니야. 떠나는 방법을 알아?”

“나도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그럼 우리 물자를 아껴야겠네.”

알레리아의 화살은 200 걸음쯤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한참을 함께 걸었다.

망치를 들고 걷던 투랄리온은 묘한 환희를 느꼈다. 그녀가 찾아오다니! 어둠의 문에서 벌였던 전쟁은 그 어떤 것보다 잔혹했다. 그는 두 세계를 오가며 호드와 싸웠지만 적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검은 사원에서는 호드의 대족장 넬줄이 아제로스의 힘을 사용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다리를 놓았다. 하지만 그의 주문은 이내 제어가 불가능해졌다. 드레노어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가 닫히며 세계의 존재를 갈가리 찢었다. 도망칠 곳은 아제로스뿐이었다.

하지만 이 파괴의 힘은 어둠의 문으로 흘러나가 아제로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얼라이언스 원정대는 이를 막기 위해 진군했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도 끔찍한 오크들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두 사람은 이 무너져가는 세계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카드가가 두 곳 사이의 균열을 봉인할 시간을 벌어 주었다. 혼란 속에서 그들 근처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 이 우주 어디가 되든 이곳보다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으로, 모두가 균열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다른 얼라이언스 원정대의 생사를 알 방법은 없었다. 드레노어에 남겨졌을 수도, 아니면 여기, 이곳 어딘가에 있을 수도, 아니면 먼 우주 어딘가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투랄리온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빛이 그를 알레리아에게 인도했다.

알레리아는 화살을 찾아와 화살통에 넣었다. “우리가 미행당하는 게 분명해.” 그녀가 찡그렸다. “아닐 수도. 여기선 내 직감이 통하지 않아.”

“내겐 잘 통했는걸.” 투랄리온이 로데론에서 재미로 사냥을 했다면, 알레리아는 실버문의 순찰대장이었다. 포식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녀의 본능이었다. “가까이 왔을 때 알아챘어야 했어. 여기엔 알 수 없는 힘이 너무 많아... 더 조심해야겠어.”

“여긴 녀석들의 사냥터야. 우리를 끝장내려 하지 않은 게 수상해. 나라면 안 그러거든.” 알레리아는 활을 옆구리에 걸쳤다.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야.”

“나 역시.” 투랄리온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날 찾았잖아. 지금은 그걸로 족해.”

알레리아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그도 아내를 가슴에 꼭 안았다. “우린 아들을 다시 만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빛의 뜻대로.”

“빛 따위. 얼라이언스 원정대는 이렇게 끝날 운명이란 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느꼈어. 아라토르를 다시 만날 거란 걸.”

알레리아의 모성은 밝게 타올라, 따뜻한 말로 투랄리온에게 온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다. “아제로스까지는 길이 멀 거야.” 그가 말했다.

“시간은 충분해.”

“당신에게는.”

그 말에 알레리아는 고개를 들었다. 투랄리온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인간의 삶은 짧다. 실버문의 엘프는 태양샘의 힘으로, 불멸에 가까운 삶을 누렸다.

“그 빛이란 게 당신을 여기서 늙어 죽게 둔다면, 정말, 정말 화가 날거야.” 알레리아가 말했다.

투랄리온은 미소를 눌렀다. “전해줄게.”

“좋아. 그럼 됐어.” 그녀는 물러서서 주변의 그늘진 곳을 둘러보았다. “다들 여기 있을지도 몰라. 찾아야 해.”

투랄리온은 어둠의 문이 있는 동쪽을 가리켰다. “가장 치열하게 싸운 곳이야.”

그들은 걸음을 옮겼다. 드레노어, 아니 드레노어의 어두운 이면과도 같은 이 곳은 계속해서 무너졌다. 세계를 뒤흔든 지진이 여기서도 잠잠했다. 바닷물은 끓어 없어져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은 상공에 떠 있었다.

그들이 어둠의 문을 닫지 못했다면 아제로스도 이 땅과 운명을 함께 했으리란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붕괴되는 속도가 더디어지는 듯했다. 이 세계의 중심 대륙이 합쳐지고 있었다. 엘라이언스 원정대는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호드는?

그들은 반도의 동쪽 끝에 다다랐다. 어둠의 문이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어떤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다. 엘라이언스도, 호드도.

“여긴 우리뿐이야.” 투랄리온이 단정 지었다.

알레리아가 한숨을 지었다. “좋은 생각 있어?”

투랄리온은 어둠의 문을 등지고 다리를 포개 앉았다. 편한 자세를 취하자 그의 갑옷이 덜그럭 소리를 냈다.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빛의 뜻에 맡겨야겠어.” 그의 주위로 빛무리가 일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신성한 힘이 그에게 흐르도록 했다. “운명이 우리를 뿔뿔이 흩뜨렸지. 이유를 알아야겠어.”

“좋아. 잘 자, 투랄리온. 난 보초를 설게.”

그는 슬며시 눈을 떴다. “새 친구가 우리를 따라온 건가?”

“응.”

“또 봤어?”

알레리아는 멈칫했다. “북쪽에서 시선이 느껴져. 당신은 못 느끼겠어?”

“글쎄. 어둠의 문 근처인가?”

“맞아.”

순간 투랄리온은 그쪽에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다. 녀석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거 모닥불이라도 피워 손님을 맞아야 하나. 그저 외로움 타는 녀석일 수도-"

굉음이 울려 퍼졌다. 투랄리온은 벌떡 일어나 망치를 꺼내들었다. 알레리아는 순식간에 화살을 메우고 뒤를 돌아 활을 겨눴다. 몇 발자국 앞 상공에 공간이 열리며 눈부신 빛이 일었다.

균열이었다. 투랄리온이 이곳에 올 때 통과했던 그것이었다.

밝은 빛 사이로, 앞으로 부르는 손짓이 보였다. 누군가 그들에게 외쳤다. "이쪽이요, 어서요!"

투랄리온은 이내 진정했다. 균열과 그 너머의 목소리가 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자야." 투랄리온이 말했다.

알레리아는 그를 흘깃 보고는 활을 낮췄다. "알겠어." 그리고 발을 내딛었다. 투랄리온이 뒤따랐다.

그들은 반쯤 죽은 나무들이 둘러싼 숲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뒤에서 균열이 닫혔다. 그들은 드레노어로 돌아왔다. 세계는 여전히 종말의 고통으로 우르릉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위를 올려다본 투랄리온은 숨이 멎도록 놀랐다. 하늘이 산산이 조각나며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었다. 창공의 파편 사이로 익숙한 어둠의 기운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드레노어와 그 다른 땅이 한데 섞이고 있었다.

"두 분을 오랜 시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자가 밝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엄니가 낡고 손톱은 길고 검었지만 성스러운 빛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알레리아는 활을 톡톡 두드리며 화살을 시위에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넌 누구냐?" 투랄리온이 물었다.

"저는 빛의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명의 전령이지요. 제 이름은 로스락시온. 빛의 어머니께서는 두 분이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게 될 거라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저를 보내신 겁니다. 와서 앉으시지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 * *

이야기는 사흘이나 이어졌다. 이내, 로스락시온은 보이지 않는 적이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의 꿈무늬를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몹시 불안해했다.

“저는 수천 년간 군단에 맞섰지만, 더 오랜 세월 군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틀린 황천을 통과할 수 있는 생명체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로스락시온은 곧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투랄리온 님에게 보이지 않았다니... 큰일입니다. 악마들은 원래 빛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로스락시온은 다른 지역, 바로 뒤틀린 황천에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뒤따라온 것의 정체가 군단에서도 보기 드문 암살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킬제덴은 그간 중요한 적을 처치하고 사로잡기 위해 몇몇을 골라 손수 훈련했다. 그 암살자는 목표물인 두 사람을 없애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즉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세 사람은 지난 사흘 간 나눌 이야기가 많았다. 이 세계와, 불타는 군단과, 악마들이 호드를 이끌어 아제로스를 침략한 방법에 대해서. 빛과 어둠이 섞여 온 우주에 불뚝을 튀기던 혼란스러운 곳, 뒤틀린 황천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드레노어 같은 실제 세계의 투영이 생겨나는 경위에 대해서.

무엇보다 로스락시온은 전혀 승산이 없는 불타는 군단과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빛의 군대에게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다. “놈을 본거지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로스락시온이 말했다. “녀석이 죽을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투랄리온은 제안을 받아들일려 했지만 알레리아는 아니었다. “로스락시온, 먼저 가라. 우리 걱정은 말고.”

“이 암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군요.”

“그들에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병사 둘? 아니면 사령관 하나?” 알레리아는 투랄리온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대가 떠나면, 암살자는 그대를 쫓을 것이다. 뺨을 놓아 녀석을 처치하고 돌아와라.”

로스락시온이 반대하려 하자 투랄리온이 그를 막았다.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로스락시온. 아주 잘 알지.” 그는 알레리아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리겠다.”

로스락시온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조용히 그들을 주시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을 무방비로 두진 않을 겁니다.”

그는 떠나기 전, 투랄리온에게 빛의 힘에 대해 몇 시간이나 설명했다. 물론 투랄리온은 성기사였지만, 인간이 전장에서 신성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다. 로스락시온은

이 힘을 수천 년이나 다뤘다. 로스락시온이 떠난 뒤, 투랄리온은 빛났다. 그야말로 환한 광채를 뽐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자 알레리아는 못마땅해졌다.

“이제 멈춰줄래? 야간 시력을 잃겠어.” 알레리아가 상냥하게 말했다.

투랄리온은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다. “내 빛이 거슬리는 거야? 내가 정의와 희망의 끝없는 힘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건가?”

“자는 동안에도, 그 빛이 당신을 지켜줄까?”

“그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도 그는 순순히 따랐다. 그의 갑옷과 망치의 빛이 희미해졌다. “새 친구는 어때? 당신이 빛으로 그의 의중을 읽을 수 없다는 것 알아.”

알레리아는 납작한 돌로 화살촉을 갈기 시작했다. “할 말이 많은 모양이던데.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

투랄리온은 시선을 떨어뜨리고 작게 속삭였다. “그럼, 그의 부탁은 어떻게 생각해?”

긴 침묵이 흘렀다. 금속을 가는 작은 소리만이 주변을 채웠다. 무거운 정적이 그들을 눌렀다. 멀리서 야생동물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진 탓에 놀라 울부짖은 모양이었다.

알레리아가 돌을 내려놓았다. “빛의 어머니께서 우릴 황천에서 구해주셨어. 여기서 며칠 더 기다리라 하신다면, 좋아. 하지만...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들라 하신다면...”

그녀는 말을 맺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투랄리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빛께서 우리를 먼저 아제로스로 보내준다면, 군대를 모을 수 있어. 우리 단 둘이 싸우는 것보다야 훨씬 좋겠지.”

“바로 그거야.” 그들은 밤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동이 트자, 그들은 교대로 눈을 붙였다. 오후가 되니 몸이 가뿐해졌다. 남은 일은 그 악마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알레리아는 로스락시온이 지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걱정했지만, 적어도 그는 기꺼이 따르긴 했다.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다. 여기서 몇 주고, 몇 달이고 기다려야만 한다면, 알레리아의 말대로 물자를 아껴야 했다.

식량과 물이 바닥나고 있었다. 투랄리온은 강을 찾아 나섰다. 알레리아는 근처 숲에 뒹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알레리아는 야영지를 서성이며 땅을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물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중에.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말이야. 우리 밤새 전쟁 얘기만 하고,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마타인 얘기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

“둘 중 하나가 전쟁에 나간다면, 한 명은 그 아이와 있어야 해.” 그가 알레리아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는 없어. 여기 온 것부터가 무리였다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애는 안전할 거야.” 그녀의 손이 그의 턱을 감쌌다.

췌

그녀의 단검이 그의 목을 단번에 찔렀다.

투랄리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쳤다. 솟구치는 피를 막으려 목을 움켜쥐었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단검을 힘껏 찔러 넣었다.

알레리아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아들 이름은 아라토르다, 이 악마야.”

투랄리온의 모습을 한 악마는 노한 듯 괴성을 지르더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한 손에서는 녹색 불길의 솟아올랐고 다른 손에서는 단검이 생겨났다. 알레리아는 재빠르게 몸을 피해 그의 팔꿈치를 잡고 빙글 돌았다. 악마는 팔이 바깥으로 꺾여 땅에 처박혔다. 단검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 증발했다. 고통과 분노로 가득한 날카로운 비명이 숲을 울렸다.

알레리아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활을 수습했다. 저만치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니 투랄리온이, 망치를 든 진짜 투랄리온이 숲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빛이 그의 뒤에서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잘했어.” 그가 비장하게 말했다.

“놈이 성급했어. 난 더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여기저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알레리아는 화살을 메웠다. “사령관 하나와 병사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보아하니 병사 둘인가 보군. 재밌네. 어떻게 생각해?”

악마가 그르렁거리며 허둥지둥 일어나려 하자 투랄리온은 망치로 그를 세게 내리쳤다. 투랄리온이 몸짓하자 악마의 변장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본모습을 드러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의 비쩍 마른 악마였다. 로스락시온의 말대로, 악마 중에서도 희귀한 에레다르였다. 검게 변한 죽은 눈에서 음산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알레리아는 그 옆에 서서 활을 겨눴다. “넌 불타는 군단의 하수인이지, 맞나?”

악마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난 무한한 군대의 일개 병사일 뿐이다. 나는 끝없는 군단의 - 가아악!" 그녀의 화살이 목표물에 꽂혔다. 그녀는 화살 하나를 더 메어 그만큼 아플 만한 곳을 새로 겨눴다. 두 번 묻지 않았다. 악마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 나는 불타는 군단이다, 버려지같은 놈들아. 피와 살을 가진 어리석은 필멸자야! 오만한 쓰레기 같은 놈들. 위대한 주군 앞에 무릎이나 꿇어-" 두 번째 화살이 꽂히자 악마는 다시 울부짖었다.

알레리아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우리를 며칠이나 미행했다. 왜지?"

악마는 낄낄거렸다. 고통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운명이 너희들 곁을 맴돌고 있어. 난 느껴져. 난 보여. 이 세상의 다른 운명은 모조리 터져 버렸어. 작은 빛들이 수도 없이 사라졌지. 하지만 너희 둘은 달라. 너희 살아남았어. 운명이 정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지..." 악마는 미친 듯 웃음을 뱉어냈다.

투랄리온이 방패를 들었다. "그렇지도. 넌 그걸 못 보고 죽겠지만."

악마의 눈이 분노로 뜨겁게 이글거렸다. "우리가 다시 안 만날 것 같아? 반드시 찾을 거야. 너희 둘다. 너희의 영혼으로 구슬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겠어. 영원히 고통받도록 말이지. 그 다음에는 너희의 아들 아라토르를 찾아서, 살게라스 님 앞에 꿇어 앉힐 거야. 그러고는 너희가 똑똑히 보는 앞에서 주인의 영광 속에 불태워버리는 거지. 지금은 이겼다 생각하겠지. 과연 그때도..."

알레리아의 손을 떠난 활이, 그대로 악마의 두개골을 뚫어 버렸다.

악마의 입이 아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악마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움찔하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알레리아가 미안하다는 듯 으쓱하며 말했다. "미안. 물어보지도 않고 끼어들어서."

"아라토르 얘기할 때부터 나도 맘에 안 들었어."

악마의 몸은 검게 썩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빛의 군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암살자를 처리한 지 한 시간이나 됐을까. 눈부신 빛이 조용히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을 비쳤다. 영광의 빛에 휩싸인 채, 그들의 정신은 또 다른 존재의 영역으로 날아올랐다.

투랄리온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모든 빛의 근원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깊은 힘을 지닌 존재였다. 알레리아는 숨이 턱 막혔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한 빛의 힘이었다.

투랄리온도 이런 강렬한 힘은 처음이었다.

우아하고, 품위 있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바로 빛의 어머니였다.

알레리아, 투랄리온, 아제로스의 두 아이여. 나는 제라다. 무사한 걸 보니 다행이나, 정말 애석한 일을 겪었구나.

알레리아가 대답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희 저희 세계를 지키려 전장에 나섰습니다. 아제로스는 안전합니다."

그게 내가 애석해 하는 이유다. 필멸의 삶이 아득한 꿈에 불과했던 태초에 난 아제로스에 있었다. 너희 같은 생명체들이 그런 끔찍한 위험을 맞이해야 하다니... 가슴이 아프구나. 다른 이들이 실패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실패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됐을 것을.

"저흰 기꺼이 그 짐을 졌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악마가 저희에게서 운명의 표식을 봤다는데?"

우주의 희망이, 너희 둘에게 있다.

투랄리온은 제라의 형상을 쳐다봤다. 제라의 모습은 오로지 신성한 힘으로 살아 움직이는 빛나는 수정 조각과도 같았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존재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평생 알고 지낸 존재처럼 느껴졌다. 빛을 통해, 투랄리온과 제라는 서로의 본질을 이해했다.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린 오래전에 패배했다. 불타는 군단은 우주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고, 모든 생명이 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린 희망을 모색했지. 끝없는 어둠에서 밝은 빛을 찾아 헤맸다. 수없이 많은 행성이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아직 어딘가엔 살아서 번성하는 땅들이 있다.

"아제로스." 알레리아가 속삭였다.

가장 밝은 빛. 군단이 만 년 전에 너희를 찾아온 이유였지. 너희 동족의 용맹과 악마들의 오만함 속에서, 군단은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 교훈을 얻었지. 드레노어의 오크들은 새로운 전략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너희 오크를 물리쳤지만, 군단도 교훈을 얻겠지. 아제로스에 대한 다음 공격이 언제가 될진 알 수 없지만, 머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알레리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아제로스로 돌아가야겠군요. 모든 국가와 단합해 대비하겠습니다."

그걸론 충분치 않다.

"충분하게 해야죠."

제라의 목소리가 슬프게 울려 퍼졌다.

아니. 군단은 너희 세계를 상대로 불타는 성전 준비를 마쳤다. 그들에겐 필요한 건 통로. 호드가 그 통로를 넘길 뻔했다.

환영이 나타났다. 구부정하고 뒤틀린 오크 흑마법사가 배를 타고 호드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투랄리온은 알 수 있었다. 굴단이란 자였다.

그는 오만함 때문에 파멸했다. 그가 성공했다면, 희망은 모두 사라졌을 터. 호드가 아제로스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나?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

"삼 년 좀 안 됩니다." 투랄리온이 말했다.

군단은 이미 수십 년째 새로운 전쟁을 준비 중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지만, 뒤틀린 황천의 힘은 예측할 수 없지. 보아라.

또 다른 환영이 나타났다. 거대한 바다였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바다에 요동치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보았다. 그곳엔 나무 두 조각이 떠다니고 있었다. 하나는 잠잠한 가장자리 쪽에, 또 하나는 중앙에. 가장자리의 나무는 한가롭게 천천히 떠다녔지만, 중앙의 나무는 소용돌이를 따라 빙빙 돌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폭풍으로 바다가 요동치면서, 거친 파도 속에 바다는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투랄리온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같은 바다, 같은 물이라 해도 동일한 힘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제로스는 우주의 요동치는 구역에 비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불타는 군단에겐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차고 넘치지만, 그 희생자들에겐 시간이 전혀 없다. 너희의 세계엔 빛이 가득하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환영이 바뀌었다. 지하 감옥이 보였고, 그 안에 엘프가 홀로 갇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투랄리온은 그의 영혼에서 증오와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빛이 언젠가 이자의 그늘진 심장을 정화할 것이고, 그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용사가 되어 불타는 군단을 무찌르리라.

투랄리온은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그럼, 군단은 왜 저힐 두려워하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 세계를 떠났을 때, 새 가능성의 물결이 운명의 광활한 바다로 퍼져 나갔고,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처음으로 미래를 밝혔다. 너희의 빛은 함께 우주를 가로질러 나아갔고, 너희는... 무언가에 도달했다. 새로운 무언가... 원래 내가 보게 될 운명이 아니었던 무언가에... 바로 에메칼드 별이었다. 그 별은 찰나의 순간을 머물다 사라져 버렸지.

"뭐였죠?"

나도 모른다. 군단이 꼭꼭 숨겨 놓은 것이었다는 것 말고는. 거기로 가면 불타는 군단을 무찌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악마들도 그걸 알기에, 암살자를 보내 너희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알레리아가 조용히 웃었다.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죽었거든요."

그 악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흰 껍데기를 파괴했을 뿐. 악마의 영혼은 뒤틀린 황천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면 악마는 되살아나 주인에게서 받은 임무를 재개하고, 희망의 밝은 빛 두 개를 꺼트리려 할 것이다.

알레리아의 입에서 욕설이 작게 튀어나왔다. 아라토르를 위협했던 그 악마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저희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안다. 내 부탁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아뇨, 모르십니다. 저희가 둘 다 죽었으면, 아라토르는 고아로 자랐겠죠. 그럼에도 저희 그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제 심장을 들여다보십시오."

보인다. 너의 순수한 사랑이.

투랄리온이 알레리아의 손을 꼭 잡자, 그녀도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아라토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제 동족과 세계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저힐 위험한다면, 전 한시도 쉬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거란 걸. 아제로스를 떠난 이후로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쁘구나. 넌 비록 빛을 접한 적 없으나, 빛은 이미 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머지 얼라이언스 원정대를 찾아야 합니다. 군단이 고작 우리 둘을 두려워하니, 모두 함께라면 별별 떨 겁니다."

그들에겐 그 나뭇의 운명이 있다. 너희가 없는 동안 너희 세계와 이 세계엔 큰 전쟁이 많을 것이고, 아제로스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결정을 내렸다. 끔찍하고 무모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환영이 사라졌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드레노어의 어떤 숲 속에 서 있었다. 근처에 균열이 열렸다. 그 안의 밝은 빛이 폐허가 된 세계를 비쳤다.

"우리 아들, 꼭 다시 만날 거야."

"빛의 뜻대로."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균열 반대편에선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로스락시온도 활짝 웃으며 둘을 맞이했다. 그 위엔 제라가 떠 있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우주가 갈구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어서 와라, 알레리아, 투랄리온. 빛의 군대에 온 걸 환영하노라.

제 2 부 - 에메랄드 별

앞으로 오거라, 도루스의 아들 투랄리온. 시간이 되었다.

투랄리온은 빛 기둥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알레리아가 있었다.

빛의 길은 모두 각기 다른 법.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다오.

"저는 로데론의 귀족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빛의 길을 공부했으며, 후에 사제가 되어 다친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제 세상이 공격받자 무기를 들었고, 은빛 성기사단 형제들과 함께 전장에서 빛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어찌하겠느냐?

"저는 죽는 그날까지 빛을 섬기겠습니다. 엄숙히 맹세합니다."

빛이 널 축복하리라. 잠시 기다리거라.

알레리아는 살며시 투랄리온의 손으로 자신의 손을 가져갔고, 둘은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빛이 이들 위를 비쳤다.

"긴장돼?"

투랄리온은 웃으며 말했다. "긴장돼."

제라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둘을 감쌌다. *옛 삶은 지나갔다. 빛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리라.*

"준비됐습니다, 제라 님."

빛이 투랄리온 위로 드리웠다. 알레리아는 투랄리온의 맥박이 고르게 고동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투랄리온이 그녀의 손을 꼭 쥐자, 그의 살갗이 따뜻해졌다.

"반대편에서 만나, 내 사랑." 알레리아가 말했다.

빛이 투랄리온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제라의 목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빛이 너에게 지혜를 허락하고, 빛이 너의 상처를 치유하며, 빛이 너의 운명을 비추리라.

투랄리온은 움직임을 멈췄다. 손이 무거워졌다. 그의 정신이 창조의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알레리아는 직감했다.

"이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자신의 과거를 본 뒤, 미래의 일부를 엿보게 되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할 텐데."

불타는 군단은 만물의 운명을 바꿨다. 하지만 한 번 바뀐 운명은 또다시 바뀔 수 있지. 투랄리온과 너, 빛의 군대원들을 통해 말이다.

"빛의 뜻대로."

알레리아는 남편이 금방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정신을 확장시켜, 자신이 항상 찾던 걸 떠올렸다. 오늘,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어떤 장면이 그녀의 정신을 채웠다. 환영이 아니었다.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니었다.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었다. 확실했다.

알레리아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재건 중인 도시였다.

스툼윈드. 스팀윈드가 분명했다. 인간들은 도시를 재건 중이었다. 하늘에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도시 성벽으로 이어지는 길은 군인, 민간인, 귀족들로 붐볐다. 그들 앞에는 고관들이 여럿 서 있었다. 깃발들이 보였다. 스팀윈드, 로데론... 그리고 쿠엘탈라스. 그 깃발 앞에 동생, 실바나스가 있었다.

알레리아의 가슴이 아파왔다. 윈드러너 가문은 대부분 호드 침공으로 죽었다. 실바나스는 살아남은 소수 중 하나였다. 그녀는 여전히 지휘관의 휘장을 차고 있었다. 실버문 순찰대 사령관. 알레리아의 영혼이 자부심으로 고동쳤다.

스툼윈드 성벽 밖에는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습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쿠르드란 와일드해머, 다나스 트롤베인, 대마법사 카드가.

투랄리온도 보였다. 바로 옆에는 알레리아의 조각상도 있었다.

얼라이언스는 드레노어에 남겨진 이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으리라. 알레리아는 원정대원 다수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빛을 통해 그걸 확인했다... 단지 돌아올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알레리아는 군중들 위로 자신의 의식을 띄웠다. 그들은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몇몇 엘프들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전사. 동료 사냥꾼. 마법사. 친구들.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한 성기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아이가 보였다.

아라토르.

그녀의 아들은 아직 너무나, 너무나 작은 아이였다. 엄마가 떠났을 당시 아라토르는 겨우 생후 몇 개월, 이제 고작 2 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조각상의 얼굴을 아이는 기억하지 못했다. 알레리아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말을 걸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빛을 통해서라면 뭐든 전달할 수 있다.

알레리아는 이해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소중했던 몇 개월을 떠올렸다. 그 기억 속에 자신을 띄우고, 아이에 대한 자신의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에 몸을 맡겼다.

빛을 통해, 그 감정을 아이와 나눴다.

아이가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그러곤 다시 알레리아 조각상 얼굴을 쳐다보며 손을 뻗었다. 예전에 엄마의 볼을 만지려고 하던 바로 그 몸짓이었다. 알레리아는 너무 벅찬 나머지 가슴이 아려 왔다.

"아이는 제 얼굴을 모릅니다."

아이는 너의 얼굴을 보러 이곳에 오고 또 올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라 님."

투랄리온의 여정이 끝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몸에서 빛이 번뜩였다. 그는 눈을 떴다. 눈에서 잠시 빛이 났다. 그는 고개를 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여정은 끝났다. 투랄리온의 맥박은 힘차고, 빛을 머금은 심장 박동은 우레와 같았다. "어서 와. 어땠어, 투랄리온?"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뜬 기분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라토르를 봤어. 이 녀석, 어엿한 성기사가 되어서, 붉은 하늘 아래 서서 날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난 그저, 그저 대견할 뿐이었어. 당신이 맞았어. 아라토르를 만나는 게 우리 운명이야."

그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알레리아도 남편을 안았고, 그의 눈물이 아내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투랄리온은 아내를 안은 채 말을 이어갔다. "전 에메랄드 별을 봤습니다. 언젠가, 군단과의 전쟁 속에서 그 존재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 잘했다, 투랄리온.

제라는 이 좋은 소식을 빛의 군대에 알렸다.

투랄리온... 아제로스의 아이이자... 로데론의 인간... 은빛 성기사단의 성기사가 필멸의 경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창조의 수호자가 될 자격을 증명하고...

빛으로 다시 태어났도다.

어느새 모두들 다가와 투랄리온을 축하하고, 얼싸안았다. 그들은 이미 형제이자 자매이자 전우였다. 이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쓰러진 동료들을 애도해 왔지만, 이제 투랄리온은 단순한 빛의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처럼, 빛과 하나가 됐다.

로스락시온이 투랄리온에게 다가가 인간의 방식으로 손을 잡았다. 알레리아가 그걸 보며 조용히 웃었다. 로스락시온은 며칠 전부터 그녀를 즐라 연습을 한 터였다. 그가 알레리아를 돌아보며 씨익 웃었다. "괜찮았습니까?"

"훌륭했어. 로데론 궁정에서도 인정해 주겠는걸?"

"당신도 빛과 하나가 될 겁니다, 암요."

"빛의 뜻대로."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빛을 공부한 투랄리온도 빛과 하나가 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으니, 자신의 때는 아직 멀었음을 알레리아는 알고 있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빛은 오늘 그녀에게 평안을 선사했다. 아들을 평생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젠 버릴 수 있었다.

아제로스 시간으로 그들이 떠난 지 겨우 2 년, 하지만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에겐 40 여 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 * *

빛의 군대는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을 받아들인 뒤, 이들을 새로운 보금자리, 제네다르로 데려왔다. 제네다르는 최고의 빛의 기술자들이 만든 경이로운 함선으로서, 뒤틀린 황천 사이를 오가며, 오랜 기간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빛의 세력의 남은 피난처 중 가장 큰 곳이자, 불타는 군단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곧 빛의 군대의 군단 요새 공격에 동참했다. 하지만, 먼저 뒤틀린 황천에서의 삶에 적응해야 했다.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은 생각지 못한 난관이었다. 아제로스의 일주일 이 둘에겐 한 달, 열 달,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앞뒤를 알 수 없이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집중할 무언가를 찾았다. 투랄리온은 총독의 의회에 들어가 군사 전략을 배웠다. 몇 년이 지나서는, 제네다르의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검을 만들었다. 신성한 힘이 깃든 검이었다. 물론 이 검을 다루기 위해 끊임없는 수련이 뒤따라야 했다.

알레리아도 자신만의 수련을 이어가며, 신성한 힘을 전장에서 사용할 방법을 연구했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의 시간으로 2 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녀의 활에는 빛의 힘이 감돌았다. 굳이 활과 화살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윈드러너 가문의 유산인 타스도라를 들고 악의 세력을 상대하는

즐거움을 알레리아는 포기할 수 없었다. 로스락시온도 그걸 권장했다. "우린 모두 과거를 안고 전장에 나가지만, 누구나 과거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는 나스레짐으로서, 그의 동족은 오래전 군단의 노예가 되었다. 알레리아는 곧 그와 친해졌고, 그에게서 엄청난 지식을 얻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악마의 편에서 싸우다가 빛의 정화를 받았기 때문에, 악마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었다.

"불타는 군단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레리아가 고개를 저었다. "오만하기도 하지."

"살게라스는 빛은 이미 물리쳤다고 믿습니다." 그는 무덤덤한 웃음을 지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전, 제 임무였죠. 전 군단의 명에 따라 공허의 생명체들을 추적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임무였죠."

얼마 안 돼, 알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깨닫게 되었다. 드레노어를 떠난 지 50 여년이 지난 어느 날, 빛의 군대는 군단의 소규모 감옥 행성을 공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의 악마들은 이미 모두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그들은 뒤틀린 황천으로 끌려가 학살당했다. 그것이 불멸의 악마 영혼을 영원히 제거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포로들도 무참히 도륙당했다.

"이건 어둠의 짓입니다." 로스락시온이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빛의 군대는 생존자를 찾아 그곳을 샅샅이 수색했다. 알레리아가 피범벅이 된 감옥을 조사하던 때였다. 살아 있는 어둠의 화신이 난데없이 나타나더니 그 실체 없는 손으로 알레리아의 목을 잡아채고는 치명적인 어둠의 마법을 그녀의 정신 속으로 우악스럽게 밀어 넣었다.

즉시 알레리아는 공격자에게 빛을 불러내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손길이 그녀에게 닿자, 그녀의 정신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깜빡.

그녀는 다른 세계의 표면을 걷고 있었다. 한때 악마로 가득했던 세계. 들어만 봤던 곳. 아르거스였다.

깜빡.

그녀는 에메랄드 별 앞에서, 끔찍한 열기를 얼굴 가득 느꼈다. 별은 그녀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깜빡.

그녀는 절벽 너머로 몸을 던지고, 무한한 암흑을 향해 떨어지면서, 내내 웃었다. 두 눈은 평온하기만 했다.

그 순간이 지나가고, 쏟아져 내린 빛이 즉시 적을 파괴했다. 알레리아는 혈떡이며 쓰러졌고, 투랄리온이 달려왔다. 빛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흐르며, 고통을 누그러뜨렸다. "알레리아, 어떻게 된 거야?"

알레리아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일어섰다. "조심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음엔 말을 들어야겠어."

그녀는 뭘 봤는지 털어놓지 않았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빛을 통해 경험한 다른 예언처럼 실감났지만, 분명히 신성한 계시는 아니었다. 빛과 어둠이 그녀의 영혼 안에서 충돌했고, 알레리아는 그로부터 어떠한 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후 몇 주에 걸쳐, 알레리아는 로스락시온에게 어둠에 대해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맞서 싸웠던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욱 침울해졌다.

"저도 노예였지만, 군단을 섬기는 건 공허의 존재가 견뎌야 하는 것에 비하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생물은, 자유를 알았던 자들은 어떻게겠습니까? 빛이여, 그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어둠을 심장에 받아들이면, 그 끝은 광기입니다."

대충 예상했던 말이었다. "안타깝군. 공허의 타락을 견뎌내는 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 군단을 상대할 막강한 아군이 될 거다."

로스락시온은 생각에 잠겼다. "제라가 들을 수 있으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가 많진 않을 겁니다. 공허의 힘을 손에 쥐면, 더 큰 힘을 갈망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힘을 더... 더... 더 갈망하다가 결국 선을 넘어섭니다. 어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둠의 소유가 됩니다. 거의 항상 그랬습니다."

"거의 항상?"

"예외는 단 하나..." 로스락시온은 기억을 더듬었다. "공간방랑자. 우린 그렇게 불렀죠. 막강한 공허의 지배자였지만, 공허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불타는 군단도 그를 붙잡으려다가 수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죠."

"그대를 죽이지 않아 다행이군."

"사실 죽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절 황천에서 끌어냈지요." 로스락시온은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제게서 '하나뿐인 운명'을 보았다고 하며,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공간방랑자. 알레리아는 그 이름을 기억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야 했다. "그대는 군단을 위해 몇 번이나 죽었지?"

"셀 수 없습니다." 그는 웃었다. "영혼이 떠도는 건 사실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르거스로 끌려가 실패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레리아는 그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군단에 맞설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제라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간방랑자나 그와 같은 존재를 모두 찾고 싶습니다." 알레리아가 말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불타는 군단을 쓰러뜨리려 하니까요."

알레리아도 제라가 반대할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기억해 뒤라, 알레리아 윈드러너. 빛은 공허와 어울리지 않는다. 어둠과의 연합이란 건 없다. 어둠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파괴하거나 노예로 삼을 뿐.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뿐이다.

제라의 차가운 혐오감은 충격적이었다. "위험은 이해하지만, 전 사냥꾼입니다. 사냥감처럼 생각해야 하죠. 우리는 지금 불타는 군단과 싸우지만, 언젠가 공허와 맞서야 할 거예요.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공허의 존재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 전쟁은 시간보다 먼저 시작됐다. 실수하지 마라, 알레리아. 공허와 접촉하려 하면, 결국 네 운명이 파멸에 이를 것이다. 투칼리온을 잃고, 아라토르를 잃고, 실버문과 아제로스까지, 사랑하는 모든 걸 잃어버릴 것이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하지 못한다. 넌 이미 공허를 쓰러뜨리는 법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제라 님."

나루의 말은 명확했다. 하지만 알레리아는 앞서 예견한 광경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아르거스에서 걷게 되리라. 에메랄드 별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암흑 속으로 뛰어내리리라. 그건 운명을 엿보는 경험이었고, 어둠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다른 것들도 잊지 않았다. 여전히 아라토르를 다시 보게 될 거라 믿었다. 불타는 군단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언젠가 빛이 더 명확한 길을 보여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 세기 한 세기가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고, 약탈하고, 처치했지만, 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림은 갑작스럽게 끝났다.

* * *

불타는 군단이 드레노어의 잔해를 침공했다. 이제 아웃랜드라 불리는 세계였다. 아제로스의 병력은 지옥불 반도 끝자락에서 절박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어둠의 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적과 맞섰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뒤틀린 황천에서 오백 년 이상을 살았다. 아제로스에서는 2 차 대전쟁 이후 이십 년 정도가 흘렀을 뿐, 한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용사들은 또 한 번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레리아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투랄리온과 제라와 대화했다. 특히 투랄리온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하면 거절당할 게 분명했다.

"나는 지난 몇 년 간 꿈을 꿔. 희미한 꿈이지만, 난 아르거스 위를 거닐고 있었지. 그때 에메랄드 별을 봤어." 알레리아는 두 팔을 벌려 잘 모르겠다는 몸짓을 했다. "처음엔 꿈이 틀린 줄 알았어. 아르거스의 방어는 탄탄하니까. 이젠 아닐 수도 있겠지."

투랄리온은 그 즉시 이해했다. "악마들이 아웃랜드를 침공했어. 지금이 아르거스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야."

알레리아의 예상과 달리, 제라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앞서 보았던 것이다. 아제로스의 밝은 빛 두 개가, 함께 에메랄드 별을 찾는 것.

알레리아는 움찔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 "저만 가야 합니다. 아르거스에 몰래 잠입하려면 혼자인 게 더 편해요."

투랄리온은 미소만 지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너무한데."

"나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야, 투랄리온.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다고."

운명에 저항하지 마라, 알레리아. 너희가 도착한 후의 일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너희 계속해서 군단과 싸울 것이다. 함께 가라. 너희는 아르거스에서 죽지 않는다.

그런 선언을 듣고 나니, 더는 따져 볼 여지도 없었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뒤틀린 황천 깊은 곳으로 출발했다. 원통형 비행선에 타고 제네다르를 떠나는 그들을 빛이 지켜 주었다. 조용하고 은밀한 여정이었지만 너무 느렸다. 아르거스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그 비행선을 이용해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 알레리아는 투랄리온에게 진실을, 아니 그 일부를 털어놓았다.

"내가 목격한 건 빛의 뜻이 아니었어. 그래서 혼자 가고 싶었던 거고." 그녀가 말했다.

투랄리온은 딱히 개의치 않았다. "그게 무엇이 뜻이든, 제라는 진실이라고 믿었어. 내겐 그 정도면 충분해." 그가 말했다. "이 우주엔 수많은 힘이 있어. 그게 빛과 함께 군단을 처치하려 한다면, 난 반대하고 싶지 않아."

"제라는 다르겠지."

투랄리온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난 제라의 지혜를 믿지만, 당신 직감도 믿어."

그들은 뒤틀린 황천을 가로질렀다. 알레리아는 자신의 실수로 그가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다.

* * *

아주 오래 전, 빛의 군대는 아르거스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온전히 황천의 장막에 휩싸인 세계였고, 그래서 빛의 군대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도 침투하기는 쉽지 않았다. 불타는 군단의 주 요새는 막강한 방어를 자랑했다. 군단이 아웃랜드를 침공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마찬가지였다. 킬제덴은 자신의 권좌를 무방비로 두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다. 그 세계의 모든 곳을 지킬 순 없었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의 여정이 끝나고, 둘은 뒤틀린 황천의 혼돈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다. 아르거스의 일부는 깜빡이는 불빛으로, 나머지는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투랄리온은 아무런 가치 없이 넓기만 한 평원을 향해 다가갔다. 유황의 악취와 그을린 바위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곳에는 살아 있는 것이 없었다. 불타는 군단은 이 세계를 차지한 후 뼈대만 남기고 모두 벗겨냈다.

투랄리온은 음울한 눈빛이었다. "빛에 버림받은 세계가 존재할 줄이야..."

"그게 아르거스지." 알레리아가 말했다.

투랄리온은 지평선을 향해 손짓했다. 거대한 협곡 끝자락이 희미하게 보였다. 깊은 골짜기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느낌이 좋은데."

알레리아는 비행선을 가리켰다. 비행선은 제네다르로 통하는 균열을 열 수 있었다. "여길 벗어날 수단은 저것뿐이야. 길을 잘 기억해 뒀. 떠날 때는 서둘러야 할 테니까."

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찾아왔다는 걸 군단이 눈치챈다면, 탈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삐죽삐죽 솟은 땅에 숨을 곳은 많았다. 지하 동굴과 바위들이 군단 정찰대의 눈으로부터 그들을 숨겨 주었다.

알레리아는 투랄리온의 몇 걸음 앞에서 함정이나 적이 없는지 살피며 걸었다. 협곡에 절반쯤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가웃했다. "최근에 누가 왔었나 본데."

투랄리온은 조용히 검을 뽑았다. 알레리아는 그를 뵈히 바라봤다. "그런 게 아니야. 정찰병 말고, 뭔가 다른 거야." 그녀는 가까이에 있는 절벽을 가리켰다. 검게 타버린 바위에 굽힌 자국이 있었다. 발치에는 잿가루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아직 따듯했다. "요리용 모닥불에, 도구를 쓴 자국이야. 여기 누군가 살고 있어."

투랄리온은 어깨를 으쓱했다. "믿기 힘들지만, 아르거스에서 동맹을 만날 수도 있겠군."

알레리아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 "군단의 등잔 밑에서 사는 자라면 숨는 덴 일가견이 있겠지. 심각한 편집증도 있을 테고. 우리 눈에 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녀는 절벽 표면을 살폈다. "넓게 트인 장소에 머무는 건 자살 행위일 테니, 몸을 숨길 방법이...? 아, 저기 있네."

찰칵.

그녀는 원하던 것을 찾았다. 튀어나온 바위가 손 안에서 돌아갔다. 절벽의 작은 부분이 문처럼 빙글 돌아 열리고, 작고 비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알레리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곳을 통해 군단 몰래 이동하는 거겠지."

투랄리온은 희미한 빛을 불러내 길을 밝히고, 구불구불한 동굴에서 앞장서 걸었다. 몇 시간 동안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갈림길이 나타날 때면 그들은 항상 계곡 쪽으로 구부러진 동굴을 택했다. 뒤틀린 황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덕분에, 태양과 별, 기타 지형지물 없이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이미 터득했었다.

계곡에 가까워지면서, 알레리아는 어딘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머리 속이 두근거리는 기분. 투랄리온을 바라보자, 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느낀 것이다.

차차 깜빡이는 초록색 불빛이 앞쪽 길을 채우기 시작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 신경을 건드렸다. 그때 투랄리온은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이 넓어지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은 아니었다. 여기 살고 있는 누군가가 절벽에 거칠게 구멍을 뚫어 군단의 동향을 엿보고 있었다. *정말* 아르거스에 저항의 불꽃이 피어난 건지도 몰랐다. 투랄리온은 앞으로 기어가, 절벽 너머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알레리아도 곧 따라갔다. "뭔데?"

"모르겠어, 알레리아. 빛에 맹세코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절벽 너머 계곡 안쪽을 바라봤다. 아르거스의 표면에 거대하게 파인 상처는 연기와 증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매섭도록 추웠다. 망치 소리와 어둠의 마법, 발걸음이 서로 뒤엉켜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이 세계의 표면에서 요새를 봤었지만, 그건 전초기지에 불과했다. *이곳* 바로 불타는 군단의 군세를 강화하는 곳이었다. 가열로와 군수품, 악마의 병영 등 수많은 건축물과 구덩이, 각종 구조물이 보였다. 계곡 바닥에만 있는 건 아니었다. 군단은 계곡의 경사면도 활용했다.

머리 속 두근거림이 점점 커졌다.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투랄리온이 절벽 가장자리를 짝 움켜쥐었다. "저쪽에서 오고 있어." 그는 전쟁 기계 반대쪽으로 계곡의 어둠 속에 건물들이 침묵에 잠긴 채 늘어서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 건물들은 모양이 달랐다. 알레리아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그녀는 군단의 요새를 수십 개는 봤었다. 하지만 이건 그것들과는 달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아제로스, 그것도 초기의 명가보다 더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옛 폐허를 닮은 모습이었다. 티탄의 폐허였을 것이다.

아르거스에 왜 티탄의 건축물이 있는 걸까?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무언가의 주의를 끈 것 같았다. 머리 속 존재가 두근거림을 멈추고 침묵했다. 그녀를 감지했다. 그녀는 끔찍한 온기를 느꼈다. 머리 속 눈에 불길이 보였다. 아르거리는 순수한 힘의 구체가 지옥 감옥에 갇힌 채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았다. 에메랄드의 감옥이었다.

그리고 멈췄다. 그 존재는 보고, 들었다. 그녀를 보았다.

비명을 질렀다.

혼돈과 공포의 산이 머리 속에 내려앉았다. 갑자기 두려움이 머리를 가득 채워, 그녀는 쓰러졌다.

"알레리아!" 투랄리온이 절벽 끝에서 그녀를 당겼다. "왜 그래?"

그 공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살아 있어, 투랄리온. 빛이여 도와주소서, 그게 살아 있어."

그는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그 존재가 그를 쳐다본 모양이었다. 투랄리온의 몸이 움찔하며 늘어졌고,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알레리아는 무엇이 접촉해 온 건지 확인하려 했다. 아르거스 깊은 곳에, 경악스러운 힘을 지닌 존재가 지옥 마력의 초록색 타락의 불길에 갇혀 있었다.

"안 돼." 알레리아가 속삭였다. "이게 에메랄드 별일 순 없어."

"빛이여..." 투랄리온이 숨을 내쉬었다.

그 존재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 힘에 둘은 전율했다. 계곡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는 소리. 행군 소리. 악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군단이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어." 그녀가 경고했다. 그 존재는 구속을 벗어나려 발버둥쳤고, 떨림은 온 세계로 번졌다. 탈출하지 못한 그 존재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존재도 소통하려 했다. 알레리아는 그 순수한 감정이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기억이었다. 그 존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단 한 번에 방출하여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 순간, 타락한 비전 마력의 샘이 그녀에게 쏟아지는가 싶더니, 그녀의 정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이 존재는 예전 어둠의 하수인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때 그녀는 운명을 엿보았다. 이제 그녀는 우주의 존재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다.

깜빡.

마력이 소용돌이치며 우주로 뻗어 나갔다.

깜빡.

그 존재는 태양 근처에서 온기를 발견했고, 커가는 그 존재를 보호하려 세계가 만들어졌다.

깜빡.

그 위에서 수많은 생명이 살고 죽었다.

깜빡.

그 존재는 배신당했다. 뭔가 강력한 힘에 결속되었다.

깜빡.

고통. 고통. 너무나도 아팠다. 안식은 꿈 속에만 있었다.

깜빡..

그들은 수많은 세계를 지배했다. 불태웠다. 그 힘을 사용하여 쓰러진 영혼을 되살렸다. 너무나도 아팠다.

깜빡.

그들은 훨씬 강력한 다른 세계를 발견했다. 그것도 차지하려 했다. 그러면 불굴의 세력이 될 테니까.

깜빡.

그 존재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했다. 두 아이가 부름에 응했다. 두 개의 밝은 빛이었다.

깜빡.

두 개의 빛이... 아제로스에서 나타났다. 아르거스와 유사한 세계였다.

알레리아는 애써 정신을 차렸다. 이제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투랄리온이 그녀를 흔들었다.

"일어나! 알레리아! 일어나! 가야 해!"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도 봤어?" 그녀가 속삭였다.

"뭘 말이야?"

그는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녀만* 보았을까? "아르거스엔 영혼이 있어. 이 세계에 영혼이 있다고. 아제로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군단이 원하는 거고."

그의 얼굴에도 그녀와 같은 당혹감이 비쳤다. 그는 머뭇거렸다. "제라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투랄리온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지금 당신을 풀어 줄 순 없지만, 돌아오겠다. 당신의 고통을 끝내 주겠다. 빛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알레리아는 허둥지둥 동굴 깊숙이 들어갔다. 악마의 비명이 주위를 가득 채웠다. 군단도 침입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 그녀는 투랄리온의 갑옷을 잡아끌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

그들은 들어온 길을 거꾸로 달렸다. 군단은 아르거스를 살살이 뒤져 세계영혼을 깨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것이다. 악마들이 알레리아와 투랄리온보다 먼저 그들의 비행선을 발견한다면, 이 세계를 떠날 방법이 사라진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근처에 악마는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이 깨어났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섰다. 비행선은 그대로 있었다. 겨우 백여 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비행선이 아르거스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군단이 그걸 발견했고, 수많은 악마들이 둘러쌌다. 악마가 너무 많았다. *지독하게* 많았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주저하지 않고 돌진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희망도 없었다. 그 대담한 공격이 시간을 벌어 주었다. 그들은 악마의 최전선에 구멍을 뚫었다. 그걸로는 부족했다.

화살을 발사하고 검을 휘둘러 때마다 악마가 쓰러졌다. 그걸로는 부족했다. 알레리아는 활을 휘둘러, 신성한 힘의 낫으로 악마 십여 마리를 소멸시켰다. 그걸로도 부족했다.

"놈들에게 붙잡힐 순 없어." 투랄리온이 거칠게 말했다. "생포돼선 안 돼."

"그런 일은 없어. *왼쪽!*" 투랄리온이 왼쪽으로 몸을 숙이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노리던 악마에게 화살을 발사했다. 알레리아는 다시 화살 두 발로 악마 넷을 죽였다. 그래도 부족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붙잡히는 것보단 죽는 게 나았다. 그들이 여기서 죽는다면 제네다르의 은신처를 군단은 모를 것이다. 그들의 동맹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빛의 군대가 얻을 것도 없었다. 정말 운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일까?

너희는 아르거스에서 죽지 않는다.

제라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렇게 틀렸다.

앞으로 나아가던 속도가 느려졌다. 군단의 병사들이 끝없이 몰려들었다. 한 무리의 에레다르가 접근하며 손으로 지옥 마법의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악마들은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사로잡으려 했다.

그녀는 계속 싸웠다. 그래도 부족했다.

너희가 도착한 후의 일은 볼 수 없다...

제라로부터 가리워진 운명이었다. 왜? 제라는 왜 보지 못한 걸까? 왜 투랄리온은 세계영혼이 보여준 환영을 못 본 걸까?

어째서?

알레리아의 마음이 순간 고요해졌다. 대답은 커다란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들려왔다. 난생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지...

투랄리온은 빛과 함께했다. 알레리아는 아니었다.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란 걸, 이젠 알았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었다. 끝이었다. 빛조차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아들과 다시 만날 거야.” 알레리아가 속삭였다. 언제나처럼 그 말은 진실로 느껴졌다. 심지어 불가능의 벼랑 끝에서도 말이다.

그녀는 그게 무엇의 목소리인지 알았다. 그것이 원하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들을 구할 것이었다. 그녀는 빛의 힘을 한 번 더 휘둘러, 앞의 공간을 비웠다. 그리고 모든 걸 놓았다.

공허에 손을 뻗었다. 어두운 힘이 흘러들어왔다. 다루는 방법을 몰랐지만, 상관없었다. 다른 무언가가, 아득한 곳에서 그녀 대신 일을 해줬으니까. 아득한 그 무언가는, 그녀가 살길 원했다. 광기에 깃든 속삭임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찢어진 차원문이 나타났다. 우주의 가장 검은 모퉁이 마냥 어두웠다.

투랄리온이 흠칫 돌아봤다. 충격에 빠져 차원문을 바라봤다. “알레리아...?”

그의 목소리에 알레리아의 가슴이 미어졌다.

절망스러운 외침과 함께, 알레리아는 투랄리온의 목에 팔을 휘감고 그를 차원문으로 잡아끌었다. 그가 문을 통과하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게 느껴졌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그의 맥박이 느껴졌다. 공허의 힘을 건넜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다.

차원문이 날카롭게 닫혔다. 알레리아는 탈진한 채 혈떡거리며 팔다리로 주저앉듯 쓰러졌다. 고개를 들자, 소용돌이치며 반짝이는 뒤틀린 황천의 혼돈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와 투랄리온은 허공에 떠 있는, 두 사람이 겨우 앉을 법한 바위 위에 있었다. 알레리아는 어둠을 놓았다. 밀어냈다. 광기의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투랄리온이 누워 신음했다. 알레리아는 그를 지켜봤다.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하려는 일 때문에 고통의 손아귀가 영혼을 압박했다.

“이제 안전해. 아르거스로부터.” 그녀가 말했다.

투랄리온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황천의 혼돈으로 향하더니 이내 알레리아에게 머물렀다. “대체... 뭘 한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순 없었다.

“알레리아.” 그가 손을 뻗었다. 그녀는 피했다. “알레리아, 제발! 왜? 어째서?”

그녀는 차분했다. “나도 그렇게 물었어. 왜? 그리고 이해했지. 우린 오늘 아르거스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 제라도 그건 알았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망치는지도, 어둠이 우릴 구한다는 것도 몰랐어.”

“당신을 악에 빠지게 하느니 죽는 게 나았어!”

“알아. 하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어. 우린 아들을 다시 볼 거야. 그리고 군단을 무찌를 거야.”

“알레리아...” 투랄리온의 목소리가 공포에 잠겼다. “되돌릴 수 있어. 용서를 구해. 어둠을 놓아버리겠다고 맹세해. 제라가 도와줄 거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를 탓할 수 없었다. 그녀도 자신이 한 일을 오직 일부만 이해했으니 말이다. “난 오랜 시간 동안 빛과 함께 걸었어. 이제는 새로운 길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해.” 그 길의 끝을 알았다면 더 나았으리라.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길은 아니.”

손이 닿자 고통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도 함께 흠칫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그는 손을 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내려다봤다.

“제네다르로 돌아가. 빛의 군대는 아직 당신이 필요해.” 찢어진 모습을 한 칠흑의 차원문이 그녀 옆에 열렸다.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줘. 지금도, 앞으로도. 믿어 줘, 투랄리온. 제발 믿어 줘.”

“알레리아, 기다려-”

“반대편에서 만나.”

그녀는 남고 싶었다. 그 무엇보다도 그와 포옹하고, 어둠을 포기하고, 빛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아제로스를 보호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의 운명이 어둠에 잠기는 거라면, 그 운명을 건뎌내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건뎌내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들을 위해서.

그녀는 차원문으로 들어섰다. 차원문이 닫히며 마지막으로 본 건 투랄리온이었다.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다.

그녀가 목숨을 끊는 걸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가 틀렸다고 단언할 수 없었다.

제 3 부 – 어둠과 빛

“너의 조건은 잘 알겠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하지만 넌 괜찮나?”

알레리아가 바라봤다. “그게 중요한가?”

“별로.”

알레리아는 이 계약의 의미를 잘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란...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다.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기 전까진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 잡히는 건 계획에 없었으나, 상황상 계획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 덕에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500 년 동안 찾아왔던 것이, 이제 손 닿는 곳에 있었다. “곧 움직일 거다. 놈들도 인내심이 바닥났겠지. 준비해라, 공간 방랑자.”

웃음소리가 그녀 위 철창에서 들려왔다. “난 너보다 이곳에 오래 머물렀다, 윈드러너. 준비는 이미 됐지.”

“좋아.” 알레리아는 군단의 심문관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알레리아가 의지를 굽히지 않아 눈에 띄게 답답해하는 상태였다. 시간이 없었다. “좀 지저분할 거야.”

방랑자의 철창에서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한다. 간단한 기술이야. 말 그대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라.”

알레리아는 눈을 감고 마음을 열었다. 머릿속을 울리는 제라의 경고는 무시했다.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미 오래 전이었다.

그저,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랄 뿐.

아르거스의 전투가 잠시 멈췄다. 곧 재개될 터였다.

대총독 투랄리온이 전선 뒤 복도를 지나가며 외쳤다. “준비해라! 첫 교전을 기다렸다가 후퇴한다. 놈들을 안까지 유인해야 한다!”

로스락시온을 지나가자, 그가 투랄리온을 쳐다봤다.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투랄리온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로스락시온이 푸념하듯 말했다. “뭐, 적어도 군단의 자존심에 금이라도 가겠죠.”

전당이 진동했다. 무거운 발소리와 절그럭거리는 무기의 소리. 소리는 커졌다. 투랄리온은 검을 쥐었다. 빛이여, 알레리아가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놈들이 온다!”

성난 악마들이 좁은 통로로 쏟아졌다. 세 공포군주 셋이 그들을 지휘했다. 로스락시온은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칼날이 맞붙었다. “오래간만이구나, 형제들이여!” 빛과 지옥 마력이 한데 엉켜져 아찔한 격노에 휩싸였다.

전투는 좁은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격전지였다. 빛의 군대는 잠시나마 막강한 적을 막아낼 수 있었다. 전선을 뚫고 악마 하나가 들어왔지만, 투랄리온의 검이 처리했다. 투랄리온이 등 뒤를 바라봤다. 중앙 방에서 기술병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완성됐나?” 그가 외쳤다. 그중 하나가 좌절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시간 없다. 후퇴하고 균열을 열라!” 투랄리온이 병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병사들은 홀로 돌진해 오는 멍청이들을 처리하며,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넓고, 천정이 높은, 불타는 군단이 균열 보호막을 두는 곳으로 향했다. 수세기 동안 공격을 받아온 군단은 마침내 아르거스로 통하는 차원문을 통해 치고 빠지는 빛의 군대의 공격을 막는 법을 알아낸 것이다. 보호막은 그 시도를 원천봉쇄했다.

공격은 절실함의 산물이었다. 투랄리온의 군대 중 누구도 보호막의 작동 원리나, 파괴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도박에 가담했다. 성공한다면 다시 아르거스에 갈 수 있었다. 세계영혼을 붙잡아 불타는 군단의 우두머리들을 위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군단이 더는 아제로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였다. 이제 아르거스의 모든 악마들이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다.

로스락시온이 옳았다. 군단의 자존심에 금이 살짝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르거스는 뒤틀린 황천에 있었다. 격퇴한 적은 영원히 저 아래 처박힐 것이었다.

병사들은 방 안쪽까지 후퇴하는 척했다. 복도에서 밀려들어온 악마들이 열린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투랄리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문의 양옆에서 기다리는 성기사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복도를 가득 채운 악마만이 투랄리온의 시야에 가득 찼을 때, 그가 명령했다.

“지금이다!”

후퇴하던 병사들이 멈춰섰다. 문가에 서 있는 성기사 둘이 팔을 뻗은 채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신성한 힘이 폭발했다. 그들 앞에 있던 악마들은 빛의 분노에 삼켜져 비명을 내질렀다.

이미 방으로 들어왔다가 충격에 뒤돌아본 악마들은, 투랄리온과 돌격대의 희생양이 될 뿐이었다. 전투는 빠르게 끝났다. 불공평하게. 투랄리온의 계획대로 말이다.

성기사 중 하나인 로잘레스 사령관이 절뚝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왔다. 다른 한 명은 소식이 없었다. 투랄리온은 애도의 기도를 중얼거리고 다른 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갈 시간이다.” 그가 말했다.

성기사의 비행선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었다. 아르거스에 물리적으로 설치하고 나니, 제네다르로 통하는 균열을 잠시나마 열 수 있었다. 군대는 좁은 균열로 피해 영겁의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투랄리온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차원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악마들이 차원문으로 몰려왔다.

“차원문을 닫게.” 투랄리온이 말했다.

“안 닫힙니다. 여기 무언가가...” 제네다르를 향해 바람이 훑 불더니, 차원문이 드디어 닫혔다. 성기사가 눈을 깜빡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죄송합니다, 대총독님. 뭔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만하지. 군단은 이곳을 침공하고 싶을 테니.” 투랄리온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아르거스에 잠입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이견이 없었다. 앞으로 군단은 제네다르 비행선을 통한 기습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당분간 빛의 군대는 이곳에 갇혀 뒤틀린 황천의 혼돈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로스락시온이 투랄리온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전투였습니다, 투랄리온 님.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투랄리온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 또한 용맹히 싸워 주었네. 모두가 그래 주었지. 말을 전해주게.”

“네, 대총독님.”

투랄리온은 걸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봤다. 그렇다.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군 하나 외엔 잃은 게 없었다. 하지만 군단의 승리였다.

천년 간 지속된 군단과의 전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죽음보다 끔찍한 운명에 놓인 이들을 자유롭게 했다. 몇십 년 동안이나 악마의 아제로스 침공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끝났다. 승리가 아니었다. 소규모 접전으로 빛의 군대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벽을 실감하며 끝났다.

투랄리온은 진력이 난 채 제라를 찾아 제네다르의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자신의 실패를 보고할 참이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제로스의 용사들이 불타는 군단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예견했다. 제라는 그들이 군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온 정신을 쏟았다.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투랄리온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그가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 운명을 이겨내는 걸 돕지 않았던 것이다.

빛이여, 그는 그녀의 성공을 바랐다. 그 전까진, 무엇도 할 수 없었다.

수습 심문관은 자신의 제단 위에 부유하며, 알레리아를 묶은 지옥 마력이 그녀의 정신에 바늘처럼 날카로운 고통을 가하는 것을 지켜봤다. “제네다르를 찾는 방법을 말해라. 안 그러면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알레리아가 니스카라에 처음 발 딛은 이후, 불타는 군단은 온갖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다. 악마들은 심문에 능통했고, 굳은 의지도 무너뜨리는 온갖 창의적인 기술이 있었다. 실제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 말해 버릴까 두려웠던 순간도 분명 있었다... 혹은, 이 감옥으로 오고 싶어서 왔다는 기색을 내비칠 뻔한 순간도.

하지만 이건? 심심할 지경이었다. 경멸을 감추기 어려웠다. 대심문관은 소질이 넘쳤다. 반면 이 수습은 창의력이라고는 없었다.

심문관이 손을 내밀었다. 긴, 갈퀴 같은 손톱이 달린 손이 펴지자 반질거리는 작고 검은 수정이 나타났다. 알레리아는 전에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다. 영혼석이었다. “이것은 킬제덴 님의 선물이다. 네가 천년 전 만났던 자에게 하사할 상이기도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윈드러너? 굴복하지 않으면, 네 영혼은 그 악마에게 구속되는 거다. 영원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군.” 알레리아가 말했다.

“아아,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그건 네가 더 원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렇게 되면, 너와 네 연인의 영혼이 다시 만나, 별들이 잿더미로 변할 때까지 함께 비명 지르게 될 테니 말이다.” 그가 손을 맞잡고 감동한 흥내를 냈다. “정말 낭만적인 광경이겠군.”

알레리아는 침묵했다.

심문관은 실망의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냐? 어쩔 수 없군.” 그가 손을 휘젓자 지옥 마력의 구속이 사라졌다. 바닥에 떨어진 그녀가 지친 시늉을 했다. 심문관은 새로운 고문 도구를 만들어 내며 천천히 다가왔다. 결국 써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계약을 이행하지, 공간 방랑자.” 그녀가 말했다.

알레리아가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물리적인 무기는 없었다. 심문관은 그녀가 빛을 쓰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하지만 그 영민한 군단도, 빛의 군대의 전사가 어둠을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둠의 힘이 정맥을 타고 흘렀다. 공허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 그녀 안에서 어지럽게 날뛰었다. 공간 방랑자가 알려준 대로 했다. 한 손은 심문관을 향해, 하나는 공간 방랑자의 철창을 향해 뻗었다. 둘은 폭발하며 산산조각 났다. 악마에겐 비명 지를 시간도 없었다.

알레리아는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경보음은 없었다. 분노의 외침도 없었다. 심문관은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어떤 경비병도, 수호자의 눈도 동행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목격자는 없었다.

공간 방랑자가 무너진 잔해에서 나타났다. 그는 순수한 마력으로 이루어진 에테리얼이었다. 잡혔을 때, 그를 감고 있던 봉대는 파괴된 모양이었다. 그는 불안정한 마력의 덩어리였다. “잘했다, 알레리아. 적어도 열등생은 아니야.”

알레리아가 돌아봤다. 잠깐 활을 찾을까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심문관의 부재가 알려질 게 뻗었다. “가야 한다.”

“그래. 그러지.” 암흑 마력이 그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들 앞에 순식간에 차원문이 열렸다. “난 회복, 넌 훈련이 필요하겠군. 최적의 장소를 안다.”

알레리아가 망설였다. 그러더니 심문관의 잔해에 몸을 기울였다. 인내심이 바닥난 에테리얼이 반응했다. “뭘 꾸물대는 거냐?”

그녀는 영혼석을 들어 보았다. “이건 날 위해 마련된 거다. 소중한 사람을 노린 영혼석이 하나 더 있을까 걱정 돼.”

에테리얼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계약 조건에 없다. 둘 중 무엇이 더 급한지 결정해라. 어서.”

알레리아는 분노에 가득 찬 시선을 던졌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는 뒤틀린 황천에 숨어있다. 하지만 그를 찾을 방법을 몰라.”

“알게 되겠지. 네 일이 끝나고도 그가 살아 있다면.”

“그럼 어서 가지.”

알레리아가 차원문으로 들어섰다. 니스카라의 뒤틀린 하늘이 사라졌다. 들어선 공간은... 공허했다. 소리도. 바람도. 땅도. 내리찍는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에테리얼의 빛만이 유일하게 그 공간을 비추었다. 알레리아는 자유로이 부유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주의를 너무 끌지 않도록 주의해라. 공허에 온 걸 환영한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뭐부터 시작하지?”

“왜, 더 죽이고 시작할까? 아냐.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조금 더... 기초적인 것부터다.” 그가 공명하자 그 앞의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까. 공허는 네 의지를 부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테니.”

“꽤 중요한 문제군.”

“무척이나.”

“일어나십시오, 대총독님. 어서요.”

투랄리온이 눈을 떴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다. 무시한 채 일어났다. “뭔가?” 로스락시온이 복도에 서있었다.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뭐?”

“제네다르 밑바닥에서 말입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대총독님. 유감입니다.” 그가 말했다.

투랄리온이 펄쩍 뛰며 일어났다. “그녀는 아니겠지.” 로스락시온은 대답이 없었지만, 그것은 대답으로서 충분했다. 투랄리온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찼다. 심장이 추락했다. “안내하게.”

그들은 즉시 함선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투랄리온은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휘몰아치는 생각으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알레리아를 못 본 지 이미 수세기가 지났다. 그녀에게 애도를 표했었다.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고통이 심장 박동마다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 어쩌면—

아니. 투랄리온은 마음을 다잡았다. 비탄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다.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녀의 시신이 여기, 제네다르에 있단 말인가?

그들은 제네다르의 힘이 흘러나오는 함선 속 수정의 전당에 도착했다. 기술병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함선이 모습을 숨기고 있었으니, 매번 보조를 설 필요는 없었던 탓이다.

로스락시온은 투랄리온을 구석까지 데려갔다. “여깁니다, 대총독님.”

그림자에 가려진 마지막 수정 기둥 뒤에서, 투랄리온은 사체를 발견했다.

“빛이여, 안 돼.”

그가 숨을 토했다. 황급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순간, 그의 숨이 멈췄다. 알레리아가 아니었다. 여자도 아니었다. 심지어 시신도 아니었다.

바닥에 누워 있는 건... 로스락시온이었다. 가슴이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입술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 뒤를... 보십시오...”

투랄리온은 일어섬과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자신을 빛에 개방하고, 그 벼락같은 힘을 받아들이며 그는 협잡꾼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자 했—

“아악!”

심장의 고통이 타올라, 영혼 깊은 곳까지 찌르고 들어갔다. 투랄리온은 움직일 수 없었다. 빛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고조차 불가능했다. 휘청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경련조차 못 했다.

로스락시온을 닮은 존재가 히죽 웃으며 그에게 느긋하게 다가왔다.

“말했잖아, 우린 다시 만날 거라고, 인간.” 간단한 손짓으로 존재는 변신을 풀었다. 드레노어에서 온 에레다르 암살자가 몸을 숙이며 투랄리온에게 자신의 단검을 보여주었다. 작게 맺힌 붉은 핏방울이 연기 나며 반짝이는 꿈쩍한 독과 함께 섞여 있었다. “네놈이 잘 때 죽일 수도 있었어,

대총독 나오리. 허나 생각을 바꿨지... 영혼을 담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일을 치르기 위해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는 이제 로스락시온을 향했다. “게다가 킬제덴 님이 널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이 배신자야.”

로스락시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 빛이... 널 태우리라...”

암살자가 로스락시온의 팔뚝에 단검을 박자, 나스레짐은 더 움직이지 않았다. “걱정 마라. 넌 살 것이다. 살아서 너희 대총독, 아제로스의 밝은 빛 중 하나가 내 전리품이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에레다르는 작고 검은 영혼석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 둘에게 보여 주었다. 그다음 투랄리온에게 돌아섰다. “알레리아 윈드러너가 살아 있다는 걸 알려 주마. 불타는 군단에게 잡혀 우리에게 갇혀 있지. 네 영혼을 손에 넣은 다음엔 그녀의 영혼을 차지할 것이다. 내 약속대로, 너희는 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순간순간, 너는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만큼이나 예민하게 느낄 것이다.”

영혼석이 투랄리온 위의 허공으로 떠 갔다. 그는 의지를 한껏 끌어올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 독에 저항하려 했다. 맞서 싸우고, 비명을 지르고, 빛을 휘두르려 했다. 제라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다.

암살자가 킬킬거리며 일에 착수했다.

* * *

“어둠이 네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어둠이 너에게 운명을 보여 줄 것이다.”

알레리아는 화가 났다. “내 기억에서 꺼져.”

웃음이 주위의 허공을 채웠다. “하하하하.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곧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어때? 생각이 달라지나?”

“아니.”

“그럼 시작하지. 넌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하지만 어둠에 닿았다고는 할 수 없지. 네 운명을 진정 이해하려면 어둠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에테리얼의 마력이 부드럽게 고동쳤다. “바로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너는 공허를 적으로 보고, 공허도 너를 적으로 보지. 공허는 본질적으로 네가 아는 생명, 그리고 이성에 적대적이다.” 주위의 암흑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둠이 없었다면 넌 살아 있지 않았겠지.”

어둠이 알레리아에게 닿았다. 겨우 무시할 수 있게 된 목소리들이 커졌다. 너무, 너무 컸다. 알레리아는 목소리를 밀어낼 수도, 목소리에 저항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공간방랑자는 계속 말을 하며 혼란에 빠진 그녀를 인도했다.

“넌 이미 진실을 하나 안다, 알레리아. 빛은 맹목적이란 거지. 빛은 운명의 전부를 보지 못한다. 운명이란 오롯이 빛의 차지가 아니기 때문이지. 너의 길은 어둠에 가려 있어, 빛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알레리아는 정신없이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에 휩쓸리며, 그의 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제 진실을 하나 더 알려 주지. 어둠도 그만큼 맹목적이다. 어둠은 네 운명이 자신의 것과 얹히는 것을 알고 기뻐했지. 그러나, 어둠 역시 운명의 일부만을 볼 뿐이다. 그러나 그 일부는 전에 네가 알던 무엇과도 다르지.”

알레리아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끔찍하고도 끔찍한 환영을.

빛이 게걸스러운 포식동물처럼 우주를 돌아다니는 광경을, 빛이 아제로스 필멸자들의 정신을 물들여, 그들을 영원히 타락시키는 광경을, 수많은 세대가 보이지 않는 사슬로 빛의 힘에 속박되어, 찰나의 평화를 대가로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죽고 사는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전쟁을 보았다. 빛의 세력이 공허에 역습을 가하는 모습을, 어둠에 싸인 세계들이 신성한 불 속에서 타는 모습을 보았다. 수백만의 생물들이 커다랗고 반짝이는 수정에 갇힌 채, 죽지도 못하고 빛에 의지해 목숨을 부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빛의 전사들은 괴물로 변해, 건드리는 것을 모조리 타락시키고 집어삼켰다.

환영은 끝없이 계속되어, 알레리아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라.” 공간방랑자가 말했다. “명심하고 절대 잊지 마라.”

“난... 뭐라고...?”

공간방랑자는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너는 어둠은 끔찍할 뿐이라고 여겼겠지. 어둠도 빛을 똑같이 여긴다. 어느 쪽도 옳지 않고,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공허의 포효에 묻히다시피 했다. 공허의 존재들이 그녀의 정신을 사정없이 할퀴었다. 버티기만도 벅찼다. “빛은 오직 하나의 길만을 따르며, 나머지를 모두 거짓이라 한다. 어둠은 여러 갈래의 길을 따르며 모두 진실이라 여기지.”

이번에는 미래의 갈래들이 보였다. 빛의 어머니 제라가 그녀를 이단이라 선포하고 처형을 명하는 광경. 투랄리온의 검에 자신의 피가 묻은 광경. 아라토르가 성기사단을 이끌고 그녀를 잡으려 나섰다가, 목에 그녀의 화살이 꽂힌 채 쓰러지는 광경. 아제로스의 파도 아래 잠자는 자 앞에 무릎 꿇은 자신의 모습. 자신이 그것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 온갖 괴물 무리를 이끌고 나라를 하나하나 집어삼키는 모습.

어둠 속을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 환영은 모두 진실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서서히... 어둠의 기억과... 어둠의 계획... 그리고 어둠의 욕망 사이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아가...

운명이 보였다. 빛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어둠조차 보지 못하는 것도 보였다. 그랬다. 어둠 역시 맹목적이었다.

끔찍한 선택들이 보였다. 고귀한 배신이 보였다. 승리... 가 보였으나,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사건들이 보였다. 공허의 거짓말은 사람을 홀리는 힘을 지녔으나, 금방 무너지고 말았다.

그녀는 언젠가 광기에 물들지도 몰랐다. 동료들을 배신할지도 몰랐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을 해치지 않는 것을 터였다. 아라토르에겐 손끝 하나 대지 않을 터였다. 변해 버린 자신을 아라토르가 죽인다 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었다. 그 진실의 무게 덕분에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어둠의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필멸자 사이의 유대를 이해하지 못했다. 타락시킬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 하나의 진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그녀는 운명이 요구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준비가 됐다, 알레리아. 저곳의 힘은 모두 네 차지다. 깊이 탐구하거라. 그러면 너의 정신이 다시 네 것이 되리라.”

그렇다. 준비는 됐다. 하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벼랑에서 뛰어내려, 기나긴 낙하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는 광경을 보았다. 그때가 오면 선택도, 대안도 없으리라. 지금은 아직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알레리아는 모두 이해하려 했다. 그녀는 공허의 지식을 뒤지며 답을 찾았다. 하지만 답이 없자, 본능적으로 빛에 의지하려 했다. 두 힘이 충돌하며 문득 눈부신 고통의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언뜻 보았다. 몸에서 혼이 찢겨 나가는 동안 소리 없이 절규하는 투탈리온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었다. “날 놓아줘. 놓아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레리아. 아무리 끔찍해 보이더라도 너는 반드시—”

알레리아가 느닷없이 공격했다. 그녀를 채운 어둠의 힘이 공간방랑자를 후려쳤다. 허를 찔린 그는 신음하며 그녀의 정신을 놓았다.

알레리아는 헐떡이며 암흑 마력을 걷어 버렸다. 그녀는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암흑 속에 떠 있었다.

성난 공간방랑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겁쟁이로군. 필멸자에게 기대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반격을 가할 생각으로 힘을 모았다.

알레리아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니스카라의 심문관에게서 빼앗은 영혼석을 꺼냈다. 검은 수정이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빛이시여, 역시 진짜였어.”

공간방랑자가 멈칫했다. “무엇을 보았지?”

“투탈리온이 죽으려고 해.”

에테리얼은 영혼석을 잡아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마력으로 그것을 조사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끈질긴 적을 만들었군, 윈드러너.” 암살자 이야기인지, 자기 이야기인지 불분명했다. “공허가 너의 사랑을 이용할 것이다. 그건 알고 있겠지? 응?”

“언젠가는 투탈리온도 죽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랬다간 난 길을 잃고 말아.”

에테리얼이 어렴풋한 빛을 발했다. “내가 진실과 거짓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 진실은 공허에서 비롯한 것이 아냐. 공허를 *변화*시키고 있었지.”

그는 다시 영혼석을 뺀히 바라보았다. “재미있군. 너는 둘도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그에게 가라. 방법은 내가 일러 주었지.” 그는 영혼석을 돌려주었다.

알레리아는 주저했다. “*제네다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니, 넌 알고 있다. 답은 바로 네 손안에 있지 않나.”

알레리아는 잠시 후에야 이해했다. 영혼석 둘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알레리아는 그 에레다르가 하는 짓을 볼 수 있었다. 암살자는 두 개를 모두 자기 목에 걸 생각이었다.

그 영혼석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에레다르가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공간방랑자를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계약은 끝난 거군.”

“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영혼석에 손을 뻗어, 공간방랑자에게 배운 대로 했다. 그 순간 제네다르로 통하는 차원문이 열렸다.

* * *

빛은 투랄리온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건 이미 받아들였다. 그래도 빛이 그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었다. 그마저도 없다면 투랄리온은 영혼이 조각조각 찢기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터였다. 그는 자기 혼이 몸을 떠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통은 참기가 힘들었다. “빛이 우리 모두를 비추길.” 그는 말하려 했지만, 암살자가 외는 주문의 소리가 귀를 파고들어, 말이 입 밖으로 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래도 계속 기도했다. “악이 정의 앞에서 달아나고, 죄 없는 자들이 평화로이 살기를.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위해, 나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리.”

암살자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 “네가 나한테 자비를 구걸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나? 난 단 한순간도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는데 어찌지.”

찬바람이 투랄리온의 얼굴을 스쳤다. 바람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살아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스친 적이 없는 듯이.

비명 소리가 들렸다. 투랄리온은 그것이, 마침내 고통에 굴복하고 만 자신의 목소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암살자의 목소리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린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투랄리온은 눈을 떴다. 그녀였다. 알레리아였다. 어둠에 휩싸인 알레리아. 그녀 안에서는 빛이 느껴지지 않았다.

암살자는 단검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악마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베려 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허공에 연기가 피어나더니 구부러진 날의 형체를 이루었다. 창은 암살자의 가슴으로 날아가 꽃혔다. 투랄리온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 자락의 끝이 악마의 등으로 튀어나와 피를 뿌렸다. 에레다르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텅텅 무릎을 꿇고, 입을 뻐끔거렸다.

알레리아는 앞으로 나섰다. “우리 영혼을 네 목에 장신구처럼 거는 것. 그것이 네가 본 운명이냐? 내가 본 운명은 달라.” 그녀가 두 손을 들자, 어둠의 마력이 응집하기 시작했다.

불거진 눈으로 혈떡거리던 암살자는, 그대로 사라졌다. 악마 위에 현실이 내리자, 그저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알레리아는 투랄리온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영혼석을 바라보았다. “안되겠어. 나 혼자서는.” 그녀는 로스락시온에게 돌아섰다. “그대의 핏줄에 흐르는 독이 느껴지는군. 미안하다. 좀 아플 거야.”

알레리아는 손가락을 구부렸다. 로스락시온이 비명을 지르며 경련했다. 녹색 연기가 나스레짐의 발톱 아래에서 피어올랐다. 펄펄 끓는 액체와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알레리아는 피부를 통해 그의 몸에서 독을 빼내고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났고, 로스락시온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로 일어섰다. “알레리아... 어떻게 된 겁니까...?”

“투랄리온을 구해 다오. 난 마무리할 일이 있다. 악마가 내 아들을 위협했거든.”

* * *

악마는 달렸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다. 세계와 세계를 넘나들고, 뒤틀린 황천과 공허 사이에서 춤을 추며. 높은 알레리아의 창을 가슴에서 빼냈다. 무기는 스르르 사라졌다. 에레다르는 고통으로 혈떡거리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중얼거렸다.

“달아나야 돼. 달아나야 돼. 달아나야 돼.”

악마는 평생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킬제덴에게 받은 임무인, 절멸만을 위해 존재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동족을 초월하도록 길러졌다. 시대를 거둬하며 빚어지고 만들어졌다. 고통을 감내하며 기량을 키웠다. 같은 에레다르들조차 그를 두려워했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는 차원 사이에 숨을 수 있었다. 마음대로 형태를 바꿀 수도 있었다. 불타는 군단을 위협할 운명을 지닌 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살해당했다. 드레노어에서. 그녀에게.

킬제덴이 그를 벌했다. 그런 다음에는 그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무려 몇 세기가 걸렸다.

그리고 에레다르는 킬제덴의 뜻을 따라 *투칼리온*을 죽여야 했고, 그다음에는 그녀를 죽일 차례였다. 그에게는 돌을 보존하여 영원토록 고문할 수단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녀*가 빠져나왔다. 게다가... 그녀는...

그녀는 변했다. 암흑의 길을 깨우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부르는 방법을 깨우쳤다.

“달아나야 돼. 달아나야 돼. 달아나야—”

암흑 물질이 놈의 목을 휘감았다. 악마는 핵 잡아채며 비명과 함께 *제네다르*로, 다시 뒤틀린 황천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순간 에레다르는 우뚝 서서, 송곳니를 드러내며 씹씹거렸다. 단검들은 두 손에서 춤을 추며 암흑의 속박을 끊으려고 했다. 놈은 절망이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독이 발린 칼날들을 여자에게 던졌다. 그녀가 그를 *여기*로, 그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데려왔다.

단검이 허공에서 똑 밟았다. 그녀가 그 옆으로 갔다.

“*킬제덴이시여! 저를 구하소서!*”

“그자가 보고 있나?” 알레리아가 앞으로 걸어가며, 거리를 좁혔다. “네가 그자의 애완동물인가?”

악마는 공포로 울부짖으며 단검을 더 불러냈지만, 모두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악마를 향해 걸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또 한 발짝. 창이 또 하나 나타나 놈의 왼쪽 어깨를 꿰뚫었다.

악마의 오른팔은 계속 단검을 던졌다. 달리 어떡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를 구하소서.” 놈이 다시 울부짖었다.

창이 또 하나 꽃히고, 악마의 나머지 팔도 축 늘어졌다.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 그녀가 말했다. “불타는 군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너희 주인들이 왜 그 끔찍한 성전을 시작했는지도 알지.”

에레다르는 킬제덴의 실망을 느낄 수 있었다. 킬제덴은 그의 간청을 듣고도... 무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악마의 앞에 서 있었다.

악마는 텅텅 무릎을 꿇었다. 자비를 구걸하려고 팔을 들어올릴 수도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으로 비는 것뿐이었다. “제발... 제발... 제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가 입을 열자 희망은 강그리 사라졌다. “너,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지.”

그녀의 단검이 악마의 목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갔다. 놈은 몸에서 생명이 흘러 나가는 동안 깜박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편하게 끝내 주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를 공허의 주인들에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널 되살릴 수도 있을 터. 이것으로 끝내겠다.”

그녀의 뒤, 전당의 반대쪽에서는 투랄리온과 로스락시온이 지켜보고 있었다. 악마는 그들의 눈에서 경악을 보았다. 공포를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안도했다.

* * *

투랄리온은 아팠다. 온몸이 쭈뼛다. 그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의 영혼이 고통으로 맥동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힘을 잃은 채 바닥에 꼼짝없이 놓인 영혼석은 이제 그저 전리품에 지나지 않았다. 로스락시온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알레리아가 돌아오고 있었다. 수정의 전당 반대편에서 이곳으로는 한참 걸어와야 했다. 그는 생각할 힘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 앞에 와서 섰다. 지친 모습이었다. “다시 보니... 좋네.” 그녀가 말했다.

그도 똑같이 말해 주고 싶었다. 사랑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도 이해하는 듯했다.

“내 운명은 빛으로 끝이 나지 않아. 어둠으로 끝이 나지. 난 오랫동안 그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그의 눈길을 받았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당신과 아라토르, 아제로스 전체가 위험해져. 날 믿어 줘.”

로스락시온이 나섰다. “저도 어둠을 안 적이 있습니다, 알레리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보았지요. 그대는 그런 자들과 다릅니다. 그대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넘겠지.” 짝막한 대답이었다.

나스레짐은 조소했다. “저는 군단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거듭 학살을 저질렀지요. 그래도 빛은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도 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쉽게는 포기하지 않아요.”

투랄리온이 그녀를 찬찬히 살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다. 알레리아는 로스락시온의 말에 감사했지만... 그 말을 믿진 않았다. “알레리아, 가. 여길 떠나.”

고통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싫어.”

“나도 함께 있고 싶어.” 투랄리온의 말에 분노는 없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을 뿐. “제라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긴커녕... 어쨌든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돼. 제라가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뒤의 일까지도.”

압도적이고도 무시무시한 존재감이 전당을 가득 채웠다. 투랄리온은 알레리아 주위에 신성한 분노가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옆으로 갔다. “제라시여,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가 말했다.

어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도 지금 이곳을 더럽히려 하는구나.

로스락시온은 빛의 어머니가 내뿜는 마력의 소용돌이 앞에 무릎 꿇었다. “들어 주십시오. 알레리아 윈드러너는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희를 구하러 돌아왔습니다. 용기와 명예, 이타심... 이런 미덕이 아직 그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빛이 정해 준 길을 벗어나면 미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제라는 분노하면서도 주저했다.

투랄리온이 제라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의 의심과 고뇌, 결의를 내보였다. “감히 청합니다, 제라시여. 그녀를 해치지 마십시오.”

제라의 무자비한 눈빛이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돌아갔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공허를 단념하고 빛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하겠느냐?

알레리아는 주저 없이 말했다. “불타는 군단이 가루가 될 때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적이 아닙니다. 전 그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군단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빛의 군대와 함께 악마들을 쓰러뜨릴 겁니다.”

아니다, 알레리아. 그건 불가능하다. 너는 정의의 길을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여기 갇혀 있으리라. 내가 예견한 미래를 네가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뜻대로 하십시오.”

빛의 군대의 군인들이 그녀를 *제네다르* 어딘가에 가두려고 끌어가는데도, 알레리아는 반항하지 않았다. 투랄리온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음 놓으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로스락시온은 그와 함께 기다렸다. “꼭 돌아오실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빛의 뜻을 믿는다. 하지만... 알레리아도 아직 믿어.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는 로스락시온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리석은 걸까?”

“그럼 우리 둘 다 어리석은 거겠지요, 형제여.”

투랄리온은 앉아서 치유사들에게 상처를 치료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생각이 활활 타올랐다. 그의 운명은 가려져 있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폭풍 한가운데에는 고요한 안식처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언제나 그녀를 믿을 것이었다. 언제나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녀 역시 그를 위해 그러리라,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에게 평온이 찾아왔다.